

파키스탄의 도전과 과제

최충주 (崔忠柱)

파키스탄은 부강국의 조건(인구, 영토, 자원, 영어권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이래 국가 정체성의 논란을 겪어오면서 이슬람이 사회통합의 유일한 구심점이 되어왔다. 이슬람은 종교로서 사회, 문화는 물론 정치, 경제, 법률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9.11 테러 이후 장기간에 걸친 대테러전으로 인해 급진적 이슬람주의가 대두되어 국내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체제는 형식상 문민정부, 민주주의일뿐 군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 미국과는 대테러협력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호불신과 불만이 점철되고 있으며 인도와는 카슈미어 분쟁을 둘러싸고 긴장 관계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과거 미중간 균형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의 중심이 중국으로 경사 되고 있으며 대중국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인도와의 관계정상화, 국내적으로는 민군관계 재균형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76 외교부에 입부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국제 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의 국제공공정책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해외 근무지는 주영국대사관, 주유럽연합대표부(브뤼셀), 주제네바대표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아태지역사무소(방콕)등이며 주밴쿠버 총영사와 주파키스탄대사(2010.8-2013.6)를 역임하였다. 퇴임후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초빙 교수(2016.3-2019.2)로 유럽통합론을 강의하였다.

일시: 2020년 6월 16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호)